



강진 김영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순천시 초등돌봄 교실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

42개교 · 2,364명 국산 제철 과일 제공

순천시는 어린이가 식습관 개선 등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연계형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42개 학교, 236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50g 씩 주1회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순천시는 ‘회용품 및 플라

스틱류 사용 안하기 캠페인’에 함께 하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 컵과일로 제공하던 것을 과일 원물 또는 학급 단위 포장으로 제공한다.

공급업체는 장성 산계농협(전남 유일 공급인증업체)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전 고시한 HACCP(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11개 과일 간식 납품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와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과일 원재료는 순천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순천에서 생산된 과일(과재)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업체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오종숙 과장은 “과일간식 섭취와 함께 식습관 교육 및 섭취지도도 진행해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순천 관내에서 생산된 과일의 소비기반 확대에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45회 보성군민의 날’ 성료

화합과 소통 위해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사기획 눈길



보성군은 지난 2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제45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역대 최대 군민들이 참여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는 보성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최형장) 주최·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식전 공연, 읍면별 입장퍼포먼스, 특별공연 기념식, 녹차고를 장수보성 브랜드 선포식, 군민화합 한마당,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념식 귀빈석을 기존의 운동장 본부석에서 잔디 구장에 돛자리로 설치하여 군민과 마주보며 진행되던 것을 군민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파격적인 기념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행진형태로 진행되던 읍면별 입장식을 폐지하고 운동장 한가운데 원형무대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읍면별 특색과

멋을 반영한 퍼포먼스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육군 제2작전사령부 태권도시범단과 의장대의 특별공연으로 좀처럼 보기 드문 볼거리를 선물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각종 스포츠 대회를 보성군으로 유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성군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한 신정식 전남축구협회 회장이 군민의 상을 수상했다.

군민화합 한마당에서는 큰 공굴리기, 바구니 공 넣기 등으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정기를 개최하고, 장애물어라리기, 인간양궁 투호, 단체줄넘기 등으로 선수선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쟁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명랑운동회로 구성하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의 힘의 원천은 바로 군민들이기에 군민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행사가 기획했으며, 모든 군민이 편안하게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시작

학생·직장인 등 대상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실시



영광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교육은 지난 2일 영광여지중

학교 2학년 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인구분야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가치관이 정립될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족의 소중함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관을 심어주기 위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독신자) 증가, 기혼자의 출산 기피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5월중에는 보건소 치매예방교실과 영광중앙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영광중학교, 영광전지고등학교, 영광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인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를 주제로 교육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람사르협약 말타 로하스 유레고 사무총장, 순천시 방문

순천시는 ‘람사르협약(The Ramsar Conservation)’의 말타 로하스 유레고(Martha Rojas Urego) 사무총장이 오는 8일 순천시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내의 국제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이후 인준된 세계 4개 람사르지역센터 중 하나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전남 지역 유일의 국제기구로 현재 동·동남·남아시아 지역 18개 당사국과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교육, 인식증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번 말타 로하스 유레고 사무총장의 순천시 방문은 람사르 습지도시 가운데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첫 도시로 그 의미가 있으며, 습지도시 순천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밑그림

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허석시장은 “말타 유레고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오는 10월 순천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원탁회의(7개국 18개 도시)에 람사르 사무총장을 초청할 계획이다”며 “람사르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 속의 명품 생태도시 순천시의 습지보전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설명회 개최

고흥군은 3일 군 우주출에서 농업단체 및 기관·사회단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고흥

군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농업단체 및 기관·사회단체장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고흥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통신 기술 접목과 에너지 활용, 관광시설 연계 등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한운섭 기자

광양시,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 창업팀 2차 모집

광양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을 위한 예비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팀을 2차 모집한다.

시는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창업팀 모집·공고하였으나 신청률이 저조해 10일까지 2차 모집에 나섰다.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팀을 선발하고 창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

업 창업 및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팀으로서 팀당 3~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팀 대표 포함 구성원 1/2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팀은 사회적경제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하고, 팀당 최대 1,25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참여 신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

시·공고란에 게시돼 있는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광양시청 투자일자리담당관(☎061-797-1967)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전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는 물론 예비청년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